희망의 책을 꽃피워온 10년의 얼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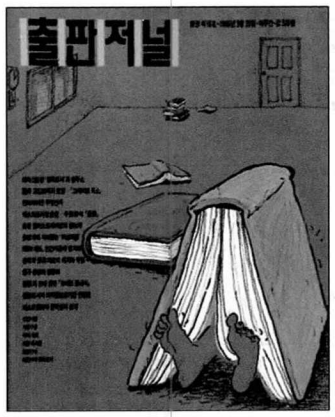
일러스트 · 이미지 · 인물 등 다양한 시도로 통권 218호 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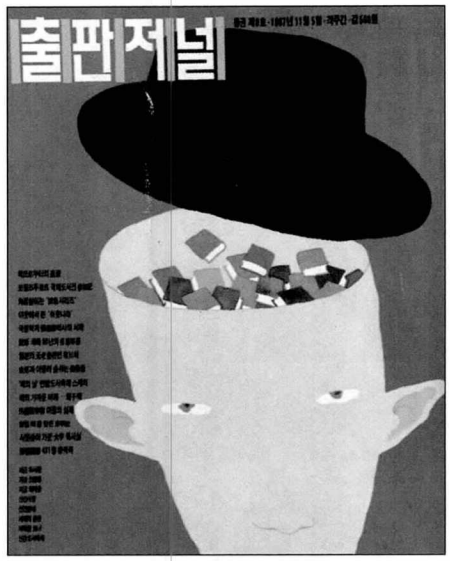
창간호부터 200호까지의 기념호들

87년 7월20일자 창간호는 희망의 꽃이 피어나는 책의 탄생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일러스트레이션이다. 서울여대 시각디자인과의 윤학중 교수가 맡았다. 기대와 염려 속에 탄생한 《출판저널》은 어느덧 지령 100호와 200호를 넘어왔다. 파격적인 판형과 세련된 편집으로 이목을 끌었던 표지는 그 자체가 한 호에 실린 책의 무한한 정보를 압축적으로 담아온 셈이다.

독보적인 자리 굳혀온 각계 주인공들

《출판저널》 표지 인물은 각 분야에 독보적인 저술업적을 보여온 원로 중진학자와 작가들이 모두 등장했다. 이제까지 표지인물로 출연했던 이는 모두 94명. 이 가운데는 구전설화를 집대성해낸 임석재옹을 비롯해 이훈종 · 이우성 · 안병무 · 강원룡 · 피천득 등 원로들과 김원일 · 최인훈 · 홍성원 등 작가, 유홍준 · 김태정 · 조혜정 등 고유영역에서 폭넓은 활동을 펴온 인물들이 망라됐다. 사진은 왼쪽부터 불교미술의 개척자 황수영 박사, '구도정신'의 시를 써온 박두진 시인, 서지학자 천혜봉 교수, 한국사 연구의 거목 이기백 교수,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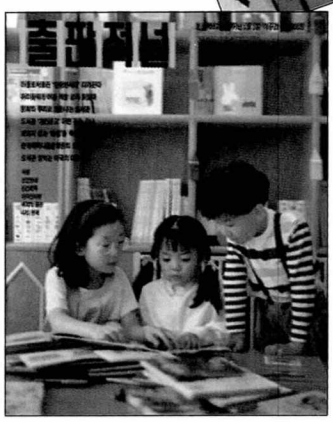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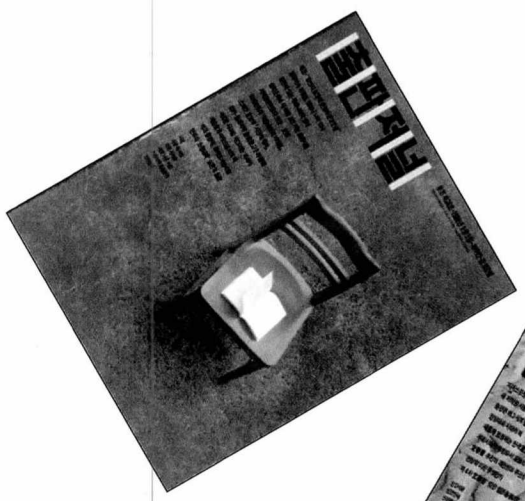
세련된 상징으로 신선함 던진 일러스트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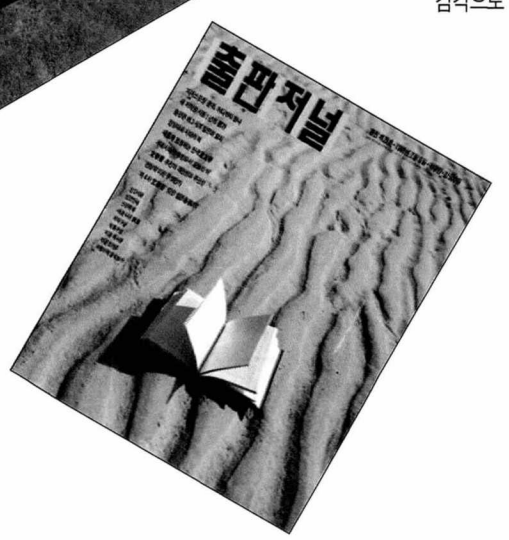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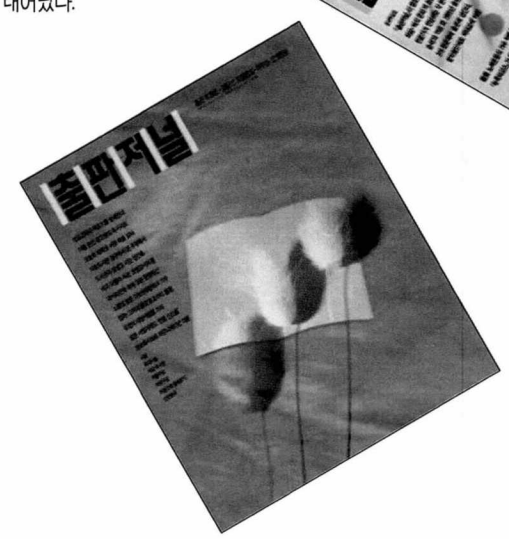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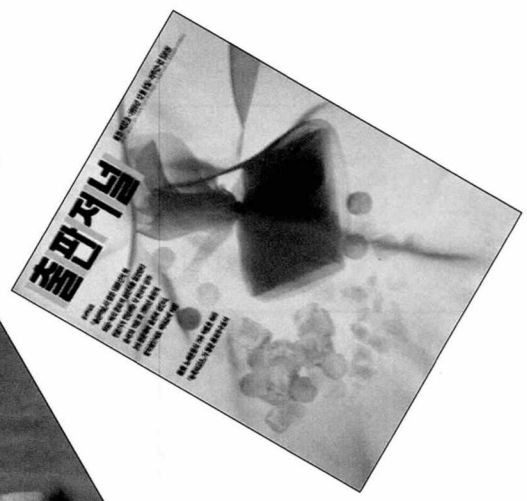
창간 이후 1년 동안 표지는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꾸며졌다. 책은 그 자체 기억의 연장이며 무한한 상상력의 온축임을 《출판저널》 표지의 뛰어난 일러스트레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잡지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라는 점, 세련된 상징으로 숱한 글보다 오히려 더 깊은 뜻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독자들에게 신선함을 던졌다. 일러스트레이션은 이성표 · 이혜리씨가 맡았다.

샛별처럼 반짝이는 어린이들

해마다 5월이면 어김없이 《출판저널》의 표지는 샛별들의 반짝임으로 빛난다. '어린이날' 특집은 《출판저널》에서 다룬 어느 특집 테마보다 가장 빈도수가 높았다. 동심의 티없는 꿈을 그대로 보여주는 어린이들의 모습은 사진작가 강운구 · 임영균씨가 담았고, 그 즈음 열리는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 콩쿠르 입상작도 때때로 표지에 등장했다.





'책'을 주제로 한 영상 이미지

《출판저널》의 표지는 '책'의 주제로 열리는 색다른 사진전시회와도 같다. 사진 이미지로 담아낸 '책'의 상징 또한 독자에게 신선한 느낌으로 다가갔다.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책의 감각과 영상은 책 속에 담긴 수많은 갈래의 글들처럼 새로운 감성을 자아낸다. 사진 이미지의 연출은 사진작가 구본창씨의 뛰어난 감각으로 태어났다.